

The Study on 1873-1875 Promenade Dress through Rehabilitation

**Moon-Sook Kim, Hyeon-Ju Kim, Hyun-Ah Kim, Jin-Kyung Eu,
Jeong-A Cho, Eun-Jung Choi, Sin-Ae Moon, Wan-Ju Kim,
In-Sook Hong and Hyun-Nam Oh**

Department of Clothing Science, Seoul Women's University

As the current stage of the fashion begins to follow the style of the past, the study on the past costume is getting more important, and as the methodology of the study accurately approached study through the rehabilitation of the past costume is more needed than the simple rearrangement of the historical documents. By this methodology, this study can be positioned as a re-creation activity.

The result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Style

The general silhouette is the early bustle style. The dress is two-piece composed of fitted bodice, and skirt to emphasize the hip.

2. Color & Material

The main color is pale powder blue and the sub-color is a deeper shade of blue. The dress is made of a fine corded silk. The bodice is lined with white, lightly glazed cotton, each piece being with the blue silk. The basque is faced with fine white silk.

3. Pattern & Sewing

The bodice is fitted with darts, princess line. The skirt is gored, the number of patterns is plenty. Most of the bodice seams are machine-stitched together, but the sleeve and the piping round the armholes are back-stitched into position by hand. The seams are oversewn to neaten them.

4. Detail

A promenade dress is trimmed with a deeper shade of blue. The X-way two bands have various effect not only to decorate but also to neaten the ending. And the deep blue tabs, the ruching at the back of the cuff, and bow are used to decorate the dress.

5.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e basque panel, cartridge pleat, tape to pull the fabric back are used to emphasiz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bustle style.

The 1873~5 promenade dress has the characteristics of transitional stage in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stume of 1870s and the remnants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vious costume style, and shows the characteristics of promenade dress well in terms of the style, color and material, pattern and sewing, detai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1873~1875년 산책용 드레스(Promenade Dress)의 실증적 연구

김문숙 · 김현주 · 김현아 · 우진경 · 조정아 · 최운정 ·

문신애 · 김완주 · 홍인숙 · 오현남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빅토리아 시대의 의상은 거의 1세기에 걸친 오랜 기간 동안 뚜렷한 특징을 갖고 많은 변화를 겪었다. 또한 이 시대의 의상은 현대적 스타일로의 전환에서 과도기적인 성격을 띄고 있어 현대 패션의 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주었으며, 현재까지도 새로운 영감의 출처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빅토리안 시대 의상에 대한 연구는 현존하는 과거의상을 실물제작 함으로써 디자인 및 디테일 등의 변화를 고찰하여 서양의복의 이해를 돕고자 하며, 그 표현기법을 재조명하여 의상분야 관련자에게 디자인의 창조력을 북돋을 수 있는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기 빅토리안 시대에 해당하는 1873~5년 산책용 드레스로 크리놀린에서 버슬 스타일로의 전환기이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스타일

전체적으로 바디스는 몸의 곡선을 드러내도록 밀착된 형태이며, 스커트는 고어 스커트로 hips를 강조하는 초기 버슬 스타일이다. 드레스는 바디스, 언더 · 오버스커트 2-piece로 구성되어 있다. 팔에 꼭 끼는 셋인 소매, 바디스 앞 중심에 단추를 채우는 트임 형식은 그 시기의 여성복에 남성복 요소를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색상 및 소재

주 색상은 옅은 파우더 블루이고, 짙은 블루로 장식하고 있다. 드레스는 굴진 실크로 제작되었으며, 흰색의 얇고 성근 면으로 바디스와 소매 안감을 대었다.

3. 패턴 및 바느질법

바디스는 다아트와 프린세스 라인으로 피팅되었고, 언더스커트는 고어스커트로 앞의 삼각형 패턴 3개, 뒤의 직사각형 패턴 3개로 이루어졌다. 오버스커트는 뒤만 있으며 테일을 잡아당겨 버슬 형태를 만들고 허리와 옆 가장자리 여분은 폴리즈를 잡아 각각 허리밴드와 리비어를 연결한다. 대부분은 통합바느질이고, 소매와 진동폴레의 파이핑은 손으로 숨은 뜨기 한다. 솔기는 휘감친다.

4. 디테일

드레스는 짙은 블루로 장식되어진다. 바이어스 두 줄 밴드는 장식의 효과와 더불어 가장자리 처리의 기능도 한다. 그 밖의 장식으로 짙은 블루의 탭, 소매의 루쉬장식, 리본장식 등이 있다.

5. 구조적 특성

바스크 패널, 카트리지 폴리츠, 오버스커트를 잡아 당기는 테일 등은 버슬 스타일의 구조적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결과적으로, 1873~5년 산책용 드레스는 크리놀린과 버슬 스타일의 전환기에 해당하며, 빅토리언 초·중기의 특징을 모두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스타일, 색상 및 소재, 패턴 및 바느질법, 디테일, 구조적 특성 면에서 모두 산책용 드레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